

한나 쿠퍼 선교사님 파송 예배 메시지

5/16/2020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Marcos Kim, Buenos Aires UBF

디모데후서 4:7,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전우 m. Hannah Kuper를 먼저 하나님께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020년 5월 14일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오고, 센터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보면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한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호흡곤란 하다며 병원에 가신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정말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신을 모셔오기 위해 그 병원에 들렀을 때 그 병원의 초라함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이런 변두리, 작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배웅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안타깝고 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으심도 외로우셨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죽으심을 성밖에서 죄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맞이하셨고, 3,4명만 그 십자가 가까이 있었고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며 외롭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 선교사님을 배웅하는 이 시간엔 4명의 선교사들이 그 마지막 곁을 지키고 있고, 이 조문소 바깥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나 선교사님은 외로운 것 같지만 결코 외롭지 않으십니다.

한나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드렸고, 그 부모님이애인이 있어서 센터에 매일 간다고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을 애인삼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학생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순수하고 준수한 미국 목자 단쿠퍼 선교사님과 가정을 이루고, 톨레토에서 불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멋지고 똑똑한 폴과 존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남미 파라과이 단기 선교사로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응답한 이후, 남미 영구 선교사로 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또 응답하셔서 아르헨티나로 나아오셨습니다.

한나 선교사님은 체구가 작은 분이셨습니다. 힘든 일을 약착같이 감당하시면서 사셨지만, 말씀 앞에서는 환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주초부터 호흡이 곤란하다고 하시다가 병원 진료를 받은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어제 관을 덮기 전에 그 얼굴을 보니 처음엔 힘든 고통을 견딘 것이 보여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 쉬고 계심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엠블런스를 타고 가족과 같이 가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던지 하나님은 우리 좋은 목자이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마지막 수업으로 학교 학생들을 돕고, 아침 저녁엔 짜장면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나 선교사님이 더 있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일을 인수인계하라”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상의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 주권은 선하십니다.

무슨 말씀으로 그를 환송해야 할지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저를 보고 “왜 슬퍼하느냐. 힘을 내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7,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사도가 싸운 싸움은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 삶을 거름처럼 내어주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한나 선교사님도 이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바울은 그 삶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끼고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아쉬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좋아서 벽찬 찬송을 불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와우. 한나 선교사님은 바울이 받을 그 동일한 면류관에 참여하게 되신 것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땅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살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라인 강의 준비하느라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잦은 기침을 갖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 수고를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쉼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또한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 있고, 강하고, 영화롭고, 썩어지지 아니할 몸을 입은 천군과 같은 영광 가운데 한나 쿠퍼 선교사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때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단 쿠퍼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나 선교사님을 어디에 묻기 원하십니까. 미국에요? 아니면 한국에요? 그는 아르헨티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나 선교사님은 아르헨티나에 뼈를 묻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은 그를 한인묘지에 안장할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들도 아르헨티나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살짝 윗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과 같이 사랑하였고 그가 자기의 죽음의 순간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삶과 소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많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딤후 4: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한나 선교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homecoming service 소감을 발표한다면 아마도 이 순간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집에 갑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시다.” 인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한다고 우리가 삶이 확 변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근신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자세히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생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네 직무를 다하라” 명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때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모든 우리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한나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영화롭게 될 때 그 기쁨이 총만해집니다. 폴과 존이 큰 영적인 장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한나 선교사님은 정말 너무나 즐거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믿음에서 자라고 열매가 풍성할 때 그는 더 즐거워 할 것입니다. 한나 선교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사셨고, 이제 면류관을 기다리며 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환송합니다. 잠시 다시 보지 못하나,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볼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름과 같이 삶을 살며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단 쿠퍼 선교사님을 갈렙과 같이 (85세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폴과 존을 영적인 장군들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Marcos Kim, Buenos Aires UBF

<Word of Farewell>

(폴 & 사라 흥, 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

우리(폴/사라 홍) 1980 년에 오하이오 주 볼링 그린에서 한나(Hannah)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 남편 단(Don)은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 톨레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귀중하게 기억합니다. 분명히 한나 쿠퍼는 거룩한 순례자였습니다. 하나님 께 순종하여 그녀는 끊임없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톨리도, 시카고, 애 크런 (미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 중국, 미국 및 아르헨티나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마음은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녀는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아 들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름입니다 ... 세상적인 명성과 인정의 일상적인 길을 떠나 그녀는 하늘에 보물을 저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그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모든것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다방면에서 재능이 가득했습니다 —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생각이 분명하면서도 생활은 단순하며 자비로우나 확고한 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따듯한 분이었습니다,

한나 쿠퍼 (Hannah Kuper)는 시편 23 편을 자주 인용했습니다.“여호와야 나의 목자 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믿음으로 그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COVID- 19으로 좁은 집을 나가지도 못한채 건강이 악화되었고, 심신이 약해졌으며 마음껏 뛰놀 수있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기쁨으로가난한 삶을 단순하고 겸손함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약자가 강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슬픔에 울고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 편은 이렇게 기쁨의 노래로 끝납니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토록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이제 그녀를 보내며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한나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힘과 휴식과 위안과 기쁨과 영광을 찾을 수 있기를기도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그녀가 마치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하는 듯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보고싶습니다. 꼭 다시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Samuel H Lee (Korea)>

저는 1976년에 한양센터 전신인 종로 5부 책임 목자로서 한나 선교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한나 쿠퍼 선교사는 이혜원으로 아름다운 서울여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인도로 성공부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잘하여 동시 통역사로 TV에 출연할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1978년, 그녀는 다니던 유니세프 직장을 그만두고 단순한 믿음으로 세계 선교명령에 순종하여 미국 유학생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볼린그린과 톨리도 유비에프 개척역사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밝고 유머가 넘치는 단 쿠퍼 선교사님과 믿음의 가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럽게 양들을 섬겼고, 몇몇 양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영문학 석사를 마치고, 다시 간호학에 도전하여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물질 자립의 어려움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충성하였고 장차는 중국에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42년을 자비량 선교사로서 전 인생을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이 여종이 갑작스럽게 소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이 여종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심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합당한 때라고 판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자비량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나 선교사님,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천국의 삶을 즐기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유족들, 단 쿠퍼 선교사, 폴, 잔 쿠퍼 2세 선교사들을 부활의 믿음과 천국소망으로 크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아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한나 쿠퍼 선교사님과 같이 단순한 믿음과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윤 모세: UBF 대표 (시카고) >

저는 한나 선교사님을 몇번 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싶히 그녀는 순수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생각할때 잠언서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첵터 31은 그녀에 대해 지혜롭고 충성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영적인 믿음의 여전사와 같았습니다. 메시지에도 언급된바와같이 그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간직한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완주자로서 하나님나라에 입성하였습니다. 하나님나라에서 그녀는 우리가 그녀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수 있도록 격려할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나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것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여기 내 나라를 물려받으렴!”

한나 선교사가 믿음으로 인생 가운데 드린 자신의 희생의 잔을 저희가 잘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단 선교사와 두 자녀, 바울과, 요한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또 함께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 쿠퍼 (아르헨티나)

오늘 우리는 엄마요 아내요, 선교사요, 더불어 위대한 영어선생님을 잃었습니다. 한나 선교사는 그녀의 인생가운데 많은 역할들을 큰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사명의 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였습니다. 그녀가 미국에 왔을때 그녀는 주님께서 주신 선교사명으로 왔으며 이로인해 미국에 평범한 젊은 이와도 결혼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결혼하고나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개방하여 젊은 여자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톨리도 유비에 프에서는 “좋은 군사 요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녀는 이미 다양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저희가정은 파라과이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선교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한나 선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였습니다.

저희는 브에노 아이레스에서 작은 첵터를 운영하였고 이 기간동안 폴과 잔은 엄마의 사명의 스피릿을 배울수 있었습니다. 폴이 한국에서 일하며 공부할때 잔은 아빠와 함께 아르헨티나에 머물며 유비에프 선교 미션을 섬겼습니다.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브에노 아이레스가 격리되어 한나 선교사는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떤면에서 흠 격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머무를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

나 선교사는 매일 3시간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왕복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스쿨을 하는 동안 파일들을 웹에 올리고 가르치는 일은 그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일동안 그녀는 호흡곤란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나라로 가는 그날 그녀는 그녀의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그녀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저에게 즉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10분후에 구급차가 왔고 병원에서는 한나 선교사가 몇가지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검사를 받기 위해 엑스레이 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리고자 1시간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그녀는 소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생 주님의 세계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일생 아내 선교사요, 엄마 선교사요, 교사 선교사로서, 그리고 유비에프 선교사로서 선교사명을 온전히 넘치게 감당하였고 또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나님나라의 주님의 팔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와 고생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